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¹⁸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¹⁹길 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²⁰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²¹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²²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21:18-22)

결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단지 사람의 형상일 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롭게 되는 능력, 즉 속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 할례

받고 세례받는 것은 그런 것이며, (자연적으로) 할례를 받고 머리를 씻는 것이 아니다 (TCR.676)

※ TCR(*True Christian Religion*, 참된 기독교) 위 676번 글에 대한 *Ager* 영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For the external man is not a man, but only the figure of a man; the internal, which is to be wise from God, is what constitutes man. So is it with one circumcised and baptized, unless he circumcises or washes his heart.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해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모든 면에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교회 가르침에서는 해가 바뀐다거나 달이 바뀌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내면에 있는 애정의 특성과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애정의 특성이 바뀐다는 것은 이런

마21:18-22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에 정빛나양에게 새해 소망을 물어보았더니 새해에는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많은 분이 감동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원래 그렇기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 같은 건 희생해도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지요. 만약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금방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신앙인들의 애정이 그렇게 바뀌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애정의 특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바뀌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말씀의 내적 의미를 많이 아는 것이 이해력이 많아지는 것일까요? 말씀의 속뜻을 많이 안다고 해서

진리가 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리를 거울삼아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 중에 어떤 거짓이 있는지, 자신의 의도 안에 어떤 악이 숨어있는지를 진리를 통해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좋지 않은 것이 있다면 주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씻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맑아지고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러한 두 가지 소망을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¹⁸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1장에도 있는데 거기에는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성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기슭에 있는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말씀에서 감람산은 사랑의 선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선이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선한 행위입니다.

그것이 감람산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는요? 베다니는 진리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인애(仁愛, *charity*)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베다니는 감람산 기슭에 있으며, 그러나 교회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보면 진리는 잘 모르지만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베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표상(表象, *representation*)합니다. 말씀에 보면 주님이 베다니와 예루살렘 성을 왕래하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문둥병자의 집에서 그들과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런 모습은 주께서 교회 안의 사람들은 물론, 교회 밖 선한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주님께서 왜 베다니에서 출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주님께서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고 합니

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교회를 나타내고요, 또 교회의 교리를 나타냅니다. 그럼 '아침'은 무엇일까요? 아침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때를 나타냅니다. 주님은 마치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당신의 얼굴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취주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내면으로 오시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내면의 교회 속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기록을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시장하셨다' 합니다. 주님도 '시장기'를 느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장기'는 인간의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음식으로 허기를 달래지만 주님은 신앙인들이 차려놓는 믿음의 열매를 잡수십니다. 그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각자의 믿음에 따라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¹⁹길 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마21:18-22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무화과나무가 한 그루 있는 것을 보시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선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려고 가까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무화과나무에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말씀에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진리의 지식을 뜻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무엇일까요? 진리에 따른 선한 행실이 바로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진리의 지식은 많은데 행함은 전혀 없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의미로는 주님 당시 유대교회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말씀의 진리를 전혀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세심하게 살피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주님이 얼마나 믿음의 열매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

매를 맺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교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구요, 또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만으로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자연적인 의미로는 사내아이의 성기(性器,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의미로는 각자의 내면에 있는 악하고 거짓된 것을 씻어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에 있는 악과 거짓을 씻어내지 않고 물리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면의 악과 거짓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선을 행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것 같은 행동 속에 이기적인 것들, 거짓된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 그것을 씻어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몰랐던 유대인들은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연적 할례만으로도 구원받았다, 선택받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대단히 경건해 보였지만 내면에는 진리도 없고 선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이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마23:27) 하셨고, '대접의 겉은 깨끗해도 속이 더러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마23:25) 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말씀의 진리만 붙들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단순히 지적 즐거움 때문에 진리에 매달리는 사람에게 그런 상태로는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

씀하시자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 버렸습니다.

신앙인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적어도 노력은 해야 합니다. 자기의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의 삶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참모습과 대면하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럽더라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 결점을 하나씩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면의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결코 인간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말씀에 기록된 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종말이 그렇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마저도 인간의 생각을 넣어 섞어 왜곡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진리를 모독합니다. 진리를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렇게 진리마저도 왜곡, 모독하여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무화과나

마21:18-22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무의 잎이 시들고 말라버리는 모습입니다.

※ 여기 ‘진리 모독’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는 ‘알면서 범하는, 행하는 죄’를 말하며, 이게 특히 더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이때는 ‘의지’(will)와 ‘이해’(understanding), ‘머리’와 ‘가슴’이 나쁜 쪽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건, 내면화, 곧 자신의 속 사람을 형성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을 수 없는’은 사실은 ‘용서가 진행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모르고 짓는 죄’는 ‘머리’와 ‘가슴’ 중 어느 한쪽으로만 짓는 죄이기 때문에 ‘내면화’는 되지 않으며, 그래서 ‘속 사람’을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잎사귀가 무성하던 나무가 눈앞에서 말라 죽었으니깐요. 그래서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²⁰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자신의 영적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변합니다. 왜 그렇게 변할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면의 악들이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면이야 어떻든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악들이 커지면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이 되면 내면의 악이 겉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주변의 이웃들이 그렇게 변한다면 우리는 대단히 놀랄 것입니다. 저분이 전에는 저러시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점점 변해가실까? 그런 생각을 하겠지요. 주님의 제자들이 놀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²¹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제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나무라시던 주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말씀에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곧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사람들과 부딪칠 때가 있지요. 때로는 감정이 격해지고 논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 이전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각자가 마음에 품고 있는 목적입니다. 만약 일의 목적은 같고 단지 실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면 방법의 차이를 좁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르다면, 방법의 차이를 좁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집

에 돌아와서 저 자신의 내면을 한번 살펴봅니다. 나의 목적이 이기적인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애정으로 행동하는 것인가? 깊이 생각합니다.

논쟁을 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옳아도 다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논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 부족해서 마음이 급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 가운데 섭리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온유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그다음에는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그런 방식으로 할 때, 즉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고, 나머지는 모두 주님께 맡길 때, 그때 순수한 애정을 가진 사람은 흥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처럼 마를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도 믿음이 있다면 무화과나무에게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마21:18-22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것은 바로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 말씀만 하시지 않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상대의 내면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먼저 너 자신에게 있는 악과 거짓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는 선하고 상대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내면을 살피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짓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악과 거짓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하구요, 또한 모든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자아 사랑과, 자아 사랑에서 나오는 모든 악과 거짓을 모두 지옥으로 던져버리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만 던져버리실 수가 있

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본래 산은 주님께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높은 산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산은 그것과는 반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즉 이기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바다는 무엇일까요? 바다는 지옥을 뜻합니다. 그래서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는 것’은 모든 악의 근본인 자아 사랑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처럼

²²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님께서 새해 첫날 이 교회로 오셨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주님은 아침 일찍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서 당신이 요기하실 것이 없음을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 중에는 소담스럽게 열매를 맺은 분도 계시겠고, 열매는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분도 계시는 것입니다. 더러는 열매를 맺기는 맺었는데, 떨어져 먹을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어떤 나무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자연적인 행위는 반드시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이웃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선 선하고 경건한 것 같아도 진정으로 선한 것은 아닙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향기로운 열매로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⁷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⁸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칭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렘17:7-8)

아멘

원본

2017-01-01(D1, 신년)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1-01(D1, 신년)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